

‘증여론’을 읽고

조병준

마르셀 모스는 ‘the Gift’라는 원제의 본 저서에서, 여러 부족 및 집단에서 발견되는 선물교환 및 거래라는 인간 행동의 유형과 관련된 사회 체계의 원칙 및 작동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때 이 선물교환 형태는 세계 곳곳의 사회에서 아주 다양한 제도와 원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종교적, 법적, 신화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교환의 고대적 형태-선물과 되갚음’(‘the archaic form of exchange-the gift and the return gift’, p45) 혹은 ‘총체적 급부’(‘total prestation’, p11)를 개인간 혹은 집단간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사회를 핵심적으로 지탱하는 총체적인 체계 혹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서술된 주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 제언하는 결론을 제외하면 본 저서는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각 ‘선물과 선물을 되돌려주는 의무 Gifts and the obligation to return gifts’, ‘시스템의 분배; 자애로움, 명예와 화폐 Distribution of the system: generosity, honour and money’, ‘초기 문헌에서의 생존들 Survivals in early literature’의 제목을 갖고 있다. 우선 1장과 2장에서는 세계 곳곳, 이를테면 멜라네시아/폴리네시아에서 상이하게 발전한 여러 부족 사회들과 크게 네 부류의 미주 원주민들, 안다만 제도, 뉴질랜드와 사모아, 파푸아뉴기니에 도처한 부족 집단들 각각의 선물교환 활동을 위시한 관습을 비교 및 대조하고 나아가 해석하는 데 집중한다. 이때 모스는 상당량의 민족지학적 사례들과 문헌을 인용하여 문화적 사실들을 열거하는데, 이는 그가 결론부에 밝히듯, ‘전체의 학문인, 구체적인 것의 연구가 추상적인 것의 연구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더 흥미로우며 사회학의 영역에서 더 많은 설명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p78)

중요한 점은, 사물 혹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선물교환 혹은 거래 양식과 관계한 이러한 사례들이 오늘날 서구 중심의 후기산업사회 혹은 시장자본주의로 대표되는 경제적 삶의 단면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3장에서 모스는 현대 사회의 경제 체계와 ‘원시사회에서 분석했던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원칙들의 중요한 흔적들’(p46)의 불연속 혹은 단절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결고리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구 문명이 발원한 인도-유럽(Indo-European) 문명을 특징짓는 3종류의 사회 속 초기 문헌들을 검토하며, 교환의 의무를 수반한 경제 활동에 대한 어원학적이고 비교문화적인 해석을 수행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1장 ‘선물과 선물을 되돌려주는 의무’에서는 사모아 및 마오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증여의 형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고받는 활동에 관계된 의무조항, 영적인 존재 혹은 자연을 상대로 한 증여의 양상을 서술한다. 가장 핵심적으로, 주고받는 활동은 ‘라틴어로 ‘do ut des’ 혹은 산스크리트어로 dadami se, dehi me’(p15)으로 대표되듯 주로 호혜적인 특성을 갖는데, 이는 초자연적이거나 자연적인 존재, 혹은 죽은 자의 이름을 갖고 그들을 대표하는 이들과의 의례에서도 일종의 거래로 나타난다. 또한 마오리 사회 내 선물 taonga와 선물에 깃든 영혼 hau의 관계에서 영적인 존재가 교환 및 거래라는 인간 활동에 관여한다고 믿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선물교환의 원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2장에서는 우선 선물교환에 대한 3가지 의무, 즉 ‘주어야 할 의무’, ‘받아야 할 의무’, ‘되갚아야 할 의무’가 강조된다. 먼저 ‘주어야 할 의무’는 북미 원주민들의 주요 의례였던 포틀래치의 본질(‘This is the essence of the potlatch’, p37)로서, 추장이 체면(‘face’)을 지키고, 소유한 부를 유지하며, 영적 존재들이 호의적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위와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로 존재한다.(p37) 이때 잘 알려져 있듯 소비(혹은 지출) 활동 자체가 목적이 되는 나머지 선물은 의도적으로 파괴되거나 희생되기도 한다. ‘받아야 할 의무’ 역시 매우 중요한데, ‘포틀래치에서는 누구도 선물이나 의식 자체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One does not have a right to refuse a gift or a potlatch.’, p39) 선물을 받지 않음은 때로 적대 및 전쟁 선언과 등가적인(‘the equivalent of a declaration of war; it is a refusal of friendship and intercourse’, p11) 표시로 이해되기도 하고, 존엄의 상실(‘a loss of dignity’, p40)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환체계의 순환을 위해서 선물을 받는 행위 역시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윤리적이고 때로 종교적인 차원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되갚아야 할 의무’는 Kwakiutl, Haida, Tsimshian 등 북미 원주민 사회에서 ‘빚에 대한 예속’(‘enslavement for debt’, p41)으로서 이해되며 계급의 상실 혹은 자유상태의 상실까지 야기할 수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이러한 3가지 의무는 교환 및 거래 활동을 정례화하며 사회를 지탱하는 지속적인 운동의 패턴을 구성한다. 이러한 흐름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로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kula 교환 체계가 지목되는데, 이때 kula는 ring을 뜻하며 kula 내에서 장식품, 필수품, 특산물 등은 집단간 원형 고리 속에서 순환되고 공유된다. vaygu’a와 같은 귀중품이 마치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위의 3가지 의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운동의 흐름으로서, 교환 및 거래활동은 주요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교환 및 거래 활동 속에서 인간(성)과 사물은 혼재되어 있고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소비 및 구매활동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특징인데, 상기 언급한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kula 교환체계에서 vaygu’a는 ‘단순한 동전 그 이상이다.’(‘they are more than mere

coins', p22) 즉, 모두가 이름, 인격, 과거, 전설을 가지고 있다.('All of them have a name, a personality, a past, and even a legend attached to them', p22) 이는 대상 역시 마치 인간의 일부분으로 여겨지고 다뤄짐을, 나아가 거래를 위해 주고받는 대상들이 주고받는 이의 인격에 속한 것 혹은 연장임을 보여준다.

둘째, 영적 존재가 교환 및 거래 활동에 간섭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적/주술적 측면에서 선물교환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데, 포틀래치에서 영적 존재의 호의를 신경쓰는 북미 원주민 추장들의 모습, 호주 마오리족이 거래 물건을 계속 갖고 있으면 영적 존재들의 작용에 의해 아프게 된다고 믿는 모습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p11)

셋째, 교환 및 거래활동은 지연된 시간성에 기반하여 교환대상을 둘러싼 교환 주체들의 신뢰와 명예에 관계한다. 우선 선물은 신용의 개념을 반드시 함축한다.('A gift necessarily implies the notion of credit', p35) 즉 높은 수준의 문명 상태를 특징짓는 것으로 오해된 신용의 유무는 고대 사회의 경제체계에서도 선물의 교환이라는 활동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명예는 북미 원주민의 포틀래치에서 주로 남김없이 지출하여 부를 이전하는 모습으로 과시되거나,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kula 교환경제에서 귀족적인 형태로 이뤄지며 'mana'로 상징되는 모습에서 교환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과 인도유럽 문명 속 문헌들에서 발견되는 경제활동의 특징들은 어떻게 관계하고 있을까? '팔고 사는, 빌리고 빌려주는 활동을 다루는 단어가 오직 하나인'('only a single word to cover buy and sell, borrow and lend', p31)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멜라네시아의 어느 부족들과 로마, 인도 그리고 게르만 고대사회의 비교적 계산적이고 잘 정립된 경제활동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모스는 1,2장에서 분석한 교환 및 거래활동들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3장의 사례들에서 모색하기를 시도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사회에서의 'Res'와 'nexum'을 뽑을 수 있다. 'Res'란 산스크리트어로 '선물' 혹은 '기쁨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rah', 'ratih'에서 기원했으며, 각종 경제적 거래 속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대상을 일컫는다. 또한 'nexum'은 법적인 유대, 계약의 형태로서 존재하며 이 살아있는 대상들을 통한 유대 속에서('These are live things', p43) 거래 주체들은 한데 묶이게 된다. 이는 고대 로마의 경제활동에서 덜 계산적이고 보다 인간적인 측면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위의 분석 중 대부분의 측면이 오늘날 시장자본주의 혹은 소비자본주의 체계의 경제 생활과 차이를 보일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점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경제 영역이 굉장히 계산적(calculating)이고 금전적(monetary)인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동시에 위 분석이 진단한 고대사회의 여러 특성들, 가령 의무적 선물과 자발적인 선물 행위 간의 혼재, 영적 존재가 거래 활동에 간섭하는 방식, 인간성을 획득한 교환대상들로부터 종합적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오늘날의 사회 구성원들은 간혹 경제와 문화의 영역을 분리하며, 역사적으로

세계 곳곳의 교환 및 거래를 수반한 경제 활동이 지극히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현상이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스는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로마 사회의 법 체계에서도 여전히 ‘Res’를 비롯한 고대사회 교환체계의 특성을 가짐을 보였으며, 이렇듯 윤리적이고 일면 주술적인 측면은 오늘날 판매/구매로 특징지어진 경제활동 및 각종 현상에 대한 분석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 행동들은 여전히 경제주체로서의 개인 및 집단의 전략적 사고행위이며, 오늘날의 경제 체제 역시 신용과 경제적 의무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서적]

The Gift: Forms and Functions of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Marcel Mauss, London : Cohen & West, 1966(1925).